

부모의 이혼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분석: 주 양육자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통해서

The Path Analysis of Parental Divorce on Children's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Through Child-Rearing Behaviors and Children's Self-Esteem

경기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교수 황혜정

고신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천희영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옥경희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Kyonggi University

Professor : Hye Jung Hwang

Department of Child Welfare, Kosin University

Professor : Hee Young Chun

Division of Social Welfare, Gwangju University

Professor : Kyung Hee Ok

◀ 목 차 ▶

I. 서론

II. 연구 방법

III. 연구 결과 및 해석

IV.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path of parental divorce on their children's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through child-rearing behaviors and children's self-esteem. The participants were 162 children from divorced families and 194 from intact families. The Instruments used were CBQ (Children's Behaviour Questionnaire) (Rutter, 1967), Child-rearing rating scale (Park, 1995) and SEI (Self Esteem Inventory) (Coopersmith, 1967). The data were analyzed by ANCOVA and path analysi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children's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and self-esteem, and caregivers' child-rearing

Corresponding Author : Hye Jung Hwang,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Kyonggi University, 94-6 Yiui-Dong, Yeongtong-Gu, Suwon, Kyonggi-Do, 443-760, Korea Tel: +82-31-249-9039 Fax: +82-2-784-5888 E-mail: jinhwang@kgu.ac.kr

behaviors between children from divorced and intact families. Second, parental divorce affected children's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directly, as well as indirectly through child-rearing behaviors and children's self-esteem.

주제어(Key Words) : 이혼(divorce), 문제행동(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 양육행동(child-rearing behavior), 자아존중감(self-esteem), 경로분석(path analysis)

1. 서론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1990년대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2000년 이후에는 그 증가율이 OECD국가 중 최고를 기록했다고 한다(통계청, 2002). 이혼율의 급격한 증가는 최근 우리 사회의 큰 변화 중 하나로 이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일년간 발생한 총 이혼건수를 당해 연도의 총 인구로 나누어 인구 천 명당 이혼건수를 계산한 조이혼율이 1980년에는 0.6건이던 것이 1990년 1.1건, 1996년 1.7건, 2000년 2.5건, 2002년 3.0건, 2003년에는 3.4건으로까지 증가하였다. 2000년도 이후 혼인율은 점점 줄어들고 이혼율이 계속 증가하다가 2004년을 기점으로 혼인율은 상승하며 이혼율은 낮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표 1 참조), 이는 97년 한국의 IMF 상황에 의한 여파로 혼인율은 계속 낮아지고 이혼율은 높아지다가, 25-45세 유배우 인구 감소와 2003년에 도입된 이혼숙려제도 등의 사회적 요인으로 인하여 2004년 이후 그 수치가 감소세로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다가 2009년에는 큰 증가는 아니지만 이혼율이 다시 증가하였다. 이러한 증가 현상이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지속될지는 앞으로의 추이를 더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혼은 명암이 공존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부부가 함께 살면서 서로 갈등과 불화가 심하면 부부 자신은 물론 자녀들도 안정되지 못한 환경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면에서 이혼은 부부가 불행한 결혼 생활을 끝맺고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그러나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가족의 해체를 경험해야 하는 자녀는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상처를 받고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된다. 부모의 이혼은 아동에게 예상치 못했던 변화를 경험하게 한다. 한 부모와만 살게 되고 새로운 역할 부담이 생기며 이사나 전학 등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데, 이는 곧 아동에게 스트레스로 작용한다(주소희, 2003). 2009년에 이혼한 부부 중 55.2%인 68,500쌍이 이혼 당시 20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어, 2009년 한 해에만 111,300명의 미성년 자녀가 부모의 이혼을 경험하였다. 통계청(2010)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20세 미만 미성년 자녀수는 139만에 달하였다. 즉 매년 10만 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발달과 적응에 있어서 이혼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모의 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인 시각과 부정적인 시각의 두 가지로 구분된다. 이혼에 대한 보편화되고 일반적인 시각은 부정적인 것으로, 이혼이란 가족의 불행으로서 거의 필연적으로 자녀에게 심리적, 행동적 문제들을 초래한다고 보는 것이다. 즉 부모의 이혼은 자녀에게 삶의 기반이던 가족을 해체시킴으로써, 이런 불행한 사건을 겪은 자녀는 행동적인 문제와 심리적인 증상들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고 보는 이혼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이다(Twaite, Silitsky, & Luchow, 1998; Wallerstein, Lewis, & Blakeslee, 2000). 이러한 견해는 이혼가정 자녀와 일반가정 자녀들을 비교한 연구 결과들에 의해서 지지되고 있다. 여러 연구들에 의하면, 이혼가정 아동은 일반가정 아동에 비해서 반사회적, 충동적, 행동적 문제를 더 많이 보이며, 의존성, 불안, 우울의 경향이 높고, 사회적 유능성이나 자아존중감은 낮았다(Giudubaldi & Perry, 1985; Isaacs & Leon, 1986; Skitka & Frazier, 1995).

이혼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국내의 연구도 이혼가정 아동이 정서적 불안정, 타인과의 상호작용 문제, 학업성적 부진, 소외, 침울한 태도, 자신감 부족, 공격적 행동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정진영, 1993),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가 낮고 사회성이 낮았다(권영미, 1999; 김남숙, 1993). 부모부

〈표 1〉 이혼건수 및 조(粗)이혼율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총이혼건수(천)	79.9	91.2	116.7	117.4	119.5	134.6	144.9	166.6	138.9	128.0	124.5	124.1	116.5	124.0
증 감(천)	11.6	11.3	25.5	1.2	2.0	15.2	10.3	21.7	-27.7	-10.9	-3.5	-0.5	-7.5	7.5
증감률(%)	17.0	14.1	28.0	1.0	1.7	12.7	7.7	15.0	-16.6	-7.8	-2.7	-0.4	-6.1	6.4
조이혼율	1.7	2.0	2.5	2.5	2.5	2.8	3.0	3.4	2.9	2.6	2.5	2.5	2.4	2.5

자료: 통계청 홈페이지, <http://www.nso.go.kr>

제의 원인이 부 또는 모의 사망이 아닌 부모의 이혼 또는 불화인 경우 문제행동 수준이 높다는 결과(이은경, 박성연, 2004; 천희영, 정계숙, 옥경희, 황혜정, 최성학, 2006)는 이혼과 같은 고 위험의 스트레스가 아동을 위협요인에 많이 노출시킴으로써(김승경, 강문희, 2005) 부적응적인 행동문제의 출현 가능성을 높인다고 볼 수 있다.

한편, Hetherington(1993)은 이혼 초기에는 자녀가 받는 영향이 부정적이었으나, 20년 후 이혼가정 자녀의 80%는 새로운 삶에 비교적 원만한 적응을 해내고 20%만이 여전히 충동적, 무책임, 반사회적 행동, 우울 등의 문제를 겪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일반가정 자녀의 5-10%(Kazdin, 1989)도 이와 유사한 문제를 겪는 것과 비교할 수 있는데, Hetherington(1993)의 이러한 연구 결과는 이혼가정 자녀의 적응이 일반가정 자녀에 비해 더 어려움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이혼가정 자녀집단 내에서의 차이가 큼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Amato와 Keith(1991)가 이혼가정 자녀의 적응에 관련된 92개의 연구를 분석한 결과와도 유사하다. 이 결과에 의하면, 이혼가정 자녀는 학업성취, 문제행동, 심리적 적응, 자아존중감, 사회적 관계 등에 있어서 부정적인 결과를 보이지만, 이혼가정 자녀와 일반가정 자녀 간의 차이가 그리 크지는 않다는 것이다.

반면, 이혼을 가족이 재출발할 수 있는 기회 및 도전으로 보는 시각도 주목을 받아왔다. Krauss(1979)는 이혼이란 병리적 결과와 성장 모두를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시각은 이혼에 대한 자녀의 지각에 관한 연구(예, Kurdek & Siesky, 1980), 이혼가정 자녀와 일반가정 자녀 간 적응에 별 차이가 없음을 보여주는 연구(예, Amato & Keith, 1991; Muransky & DeMarie-Dreblow, 1995; Twaite et al., 1998), 심지어 이혼이 부정적 결과뿐만 아니라 긍정적 결과도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예, Kogos & Snarey, 1995) 등에 의해 지지되고 있다. 김남숙(1993)은 아동의 우울·불안에 관한 연구 결과, 두 집단 간에 차이가 없다는 결과를 보고하였으며, 이에재(1999)는 오히려 일반가정 아동들의 우울·불안이 더 높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유희정(2001)은 부모의 이혼 여부보다 동거부모의 애정과 사회적 지지가 대학생 자녀의 생활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부모의 이혼과 자녀의 적응간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들은 상반되는 결과들이 많다. 이런 상반되는 결과들이 도출된 이유를 Twaite 외(1998)는 연구대상자의 차이,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개념화와 조작적 정의 방식의 차이, 방법론적 타당도의 차이 등으로 설명하면서, 이혼 후 자녀의 적응을 예견하는 변인들을 부모 간 갈등의 수준, 양육권의 소재, 양육 부모의 심리사회적 적응도, 양육권 부모의 재혼 여부, 비양육권 부모와 자녀의 관계, 이혼 시 자

녀의 연령, 자녀의 성별, 이혼 후 일어난 생활상의 부정적 변화 정도, 사회적 지원, 가족체제의 기능성 등으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혼이 아동의 적응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에 초점을 두고, 이를 위해 이혼이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문제행동이란 일상생활에서의 인지적, 정서적, 심리운동기능적 행동이 발달적, 사회적 규범에서 벗어나 비정상적인 부적응적 양식을 띠는 것을 말한다. 이런 행동을 보이는 아동은 신체적, 사회적, 개인적 상황의 여러 측면에서 적응상의 문제를 나타내며, 자신의 안정과 적응에 부정적인 결과를 낳게 된다(황혜정, 2005).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매우 다양하고 여러 이론적 관점에 따라 강조되는 바가 다르다.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변인(성, 학년, 자기통제력, 학교생활만족도)과 환경변인(권위적인 양육태도, 또래지지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본 하영희(2003)의 연구에서는 개인변인과 환경변인들이 상호작용하여 아동의 문제행동을 증재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증재효과를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이혼가정 아동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아동 개인 요인과 가족 요인으로 구분하여 고찰하는 연구들이 있는데(이삼연, 2002; Sandler, 2001), 이 중 가족요인으로 부모의 양육태도를 가장 중요하게 꼽고 있다(오은순, 1997).

한편, 문제행동 중 내면화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경로에 대해 연구한 이주리(2008)에 의하면, 내면화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크게 부모관련 변인과 자아관련 변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하였다. 부모관련 변인 중 대표적인 것으로 양육태도를 들 수 있으며, 자아관련 변인으로는 정서적 조절과 자아존중감을 들었다. 정서적 조절이나 자아존중감 같은 변인은 성장과정에서 환경의 영향을 받으며 대부분 후천적으로 형성되므로 부모의 양육태도가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주소희와 조성우(2004)의 연구에서 부모의 양육태도는 아동의 이혼지각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아동의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쳤는데, 아동의 이혼지각은 아동이 부모의 이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말한다. 즉 이혼 자체보다 아동이 이혼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이혼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변인으로 볼 수 있다. 이주리(2008)도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정서적 조절과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청소년의 내면화문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경로모형을 구성하였다.

부모의 양육태도 또는 양육행동은 아동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Darling & Steinberg, 1993). 일반적으로 양육태도와 양육행동이라는 용어는 혼용하여 사용되나, 양육의 실제라는 측면을 강조하는 경우 양육행동이라는

용어를 선호하여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본 연구에서도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행동 실제에 초점을 맞추어 양육행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많은 연구들은 이혼이나 별거 등의 가족구조의 변화보다는 부모와의 관계, 부모의 양육행동 같은 가족과정(family process)이 이혼가정 아동의 부적응을 더 잘 설명해줄 수 있다고 하였다. 이혼은 자녀뿐 아니라 부모 자신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이혼 후 자녀의 양육을 책임져야 하는 부모는 공동으로 책임지던 양육을 혼자 떠맡고 가사를 책임지게 되면서 양육의 부담을 가지게 된다. 부모는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해 자녀의 요구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며 양육기술 및 의사소통 기술의 부족 등 부모 역할에 있어서 능력감소를 보일 수 있으며, 이러한 스트레스는 비일관적, 강제적, 거부적, 비애정적인 양육행동으로 나타나(Hetherington, Cox, & Cox, 1982) 자녀의 정서적, 행동적 문제에 영향을 준다(김승경, 강문희, 2005; 주소희, 2003; Hetherington & Camara, 19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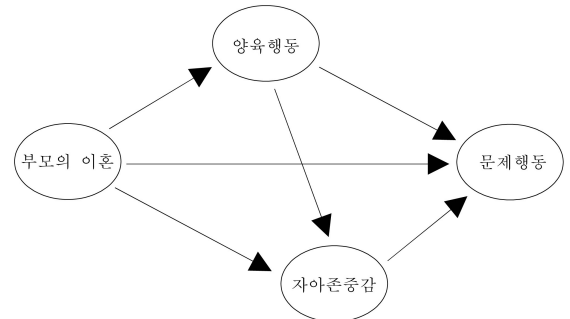
반면, 부모가 일관성 있게 애정적, 수용적인 태도로 자신을 양육한다고 지각할수록 아동은 이혼과 관련된 스트레스가 증대되고 유기불안이 감소되어 정서적, 행동적인 문제가 감소하였으며(Hetherington & Camara, 1984; Wolichik, Wilcox, Tein, & Sandler, 2000), 부모의 이러한 긍정적인 양육행동은 자녀의 자아존중감, 내적 통제력, 친사회성, 학업 성취와 긍정적인 연관성을 갖는다(강희경, 2002). Wolichik 외(2000)는 양육부모의 효과적인 양육이 이혼 후 아동의 적응을 돕는 중요한 요소라고 하였다.

한편,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태도(Rosenberg, 1965)로서 자신에 대한 존경의 정도와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는 정도를 의미한다. 이는 자신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자아존중감이 아동의 적응과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로 많은 연구에서 주목되었다(백혜정, 황혜정, 2006; Donnellan et al., 2005). 이혼가정 자녀와 일반가정 자녀의 심리사회적 측면을 비교한 국내의 연구들도 자아존중감을 측정하였는데, 그 결과 이혼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일반가정 아동보다 낮다고 보고되었다(권영미, 1999; 김남숙, 1993; 이삼연, 2002; 홍순혜, 2004). 반면, 이혼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간에 자아존중감이 차이가 없다고 밝힌 연구도 있다(이애재, 1999). 또한 자아존중감이 아동의 적응이나 비행과 관련이 없거나(Jang & Thornberry, 1998), 간접적 영향만 있는 것으로 보고되는 연구(이경남, 2002)도 있다.

이혼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이혼 후 겪게 되는 부모의 역할수행, 양육행동, 심리정서 등의 어려움에 초점을 맞춘 연구(공선영, 2000)나 이혼가정 아동이 일반가정 아동에 비

해 적응이나 문제행동, 자아존중감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들(권영미, 1999; 박병금, 1997; 이삼연, 2002; 홍순혜, 2004)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들은 단편적인 이혼의 영향보다는 이혼이라는 변화된 환경에 아동이 어떻게 적응을 하고 이러한 적응을 돕거나 저해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탐색하는 연구들(김승경, 강문희, 2005; 한준아, 박경자, 2008)이 시도되고 있다(박경자, 최혜영, 한준아, 2009).

이러한 근거에 의해 본 연구에서는 이혼이라는 사건이 가족의 역할과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가족의 특성이 아동의 개인 특성에 영향을 주어 아동의 부적응을 야기한다는 개념 모델을 설정하여 이혼가정 아동의 문제행동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아동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이 아닌 심리적 변인인 자아존중감을 개인변인으로 선정하고 주 양육자의 양육행동을 가족변인으로 선정하여 <그림 1>과 같은 경로모형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경로분석을 통해서 부모의 이혼이 자녀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어떤 경로가 가장 잘 설명해주는지를 알아봄으로써, 부모의 이혼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주 양육자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어떻게 매개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그림 1> 부모의 이혼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모델

연구문제 1. 이혼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은 문제행동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서 차이를 보이는가?

- 1) 이혼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은 문제행동에서 차이를 보이는가?
- 2) 이혼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은 주 양육자의 양육행동에서 차이를 보이는가?
- 3) 이혼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은 자아존중감에서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문제 2. 부모의 이혼은 주 양육자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

- 1) 부모의 이혼은 아동의 문제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가?
- 2) 부모의 이혼은 주 양육자의 양육행동을 매개로 아동의 문제행동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가?
- 3) 부모의 이혼은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아동의 문제행동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가?
- 4) 부모의 이혼은 주 양육자의 양육행동을 매개로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아동의 문제행동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가?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초등학교에 재학하는 이혼가정의 아동 162명, 일반가정의 아동 194명, 총 356명과 그들의 초등학교 담임교사들이었다. 연구 대상 아동은 서울, 경기도, 부산, 광주 각 지역에서 무선적으로 표집된 10개 초등학교에 재학하는 아동들 중 부모가 이혼한 아동과 일반가정의 아동들이었다. 아동의 성과 연령이 이혼 후의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Emery & Forehand, 1996)에 따라 대상아동의 학년을 저학년(1, 2)과 고학년(5, 6)으로 구분하여 표집하였다. 연구대상 아동들의 가정별, 학년별, 성별 분포는 <표 2>와 같다.

2. 연구 도구

1) 문제행동

초등학교 아동의 문제행동을 진단하기 위해서 교사용 The Children's Behaviour Questionnaire(CBQ)를 사용하였다(Rutter, 1967). 교사용 CBQ는 아동의 행동을 나타내는 26문항으로 되어있고, 교사가 각 문항에 대해 3점 척도로 평정하여 아동의 문제행동을 진단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정말 그렇다'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의 5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아동의 문제행동은 정서

문제 4문항, 행동문제 6문항 그리고 혼합형 문제 16문항으로 구분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행동을 많이 보이는 것으로 진단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검사의 전체 신뢰도 계수는 .96였으며, 하위요인별로는 .78-.91이었다(표 3 참조).

2) 양육행동

아동이 지각하는 주 양육자의 양육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Schaefer(1959)의 어머니 양육행동 모형을 토대로 박영애(1995)가 개발한 양육행동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 척도의 하위요인 중 아동에 대한 애정표현, 온정적 태도, 수용, 존중, 이해, 긍정적 평가, 관심과 참여 등의 온정·수용 양육행동을 측정하는 9문항과, 아동에 대한 불안, 부정적 평가 또는 비난, 부정적 감정표현, 적대적 감정적 훈육, 억압 등의 거부·제재 양육행동을 측정하는 8문항, 총 17개 문항을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응답자인 아동은 자신에 대한 주 양육자의 평소 행동을 근거로 하여 그것이 문항 내용과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매우 그렇다'에서 '매우 그렇지 않다'의 4점 척도에 답하였으며, 높은 점수를 얻을수록 각 특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전체적인 양육행동 점수는 거부·제재 점수를 역코딩하여 온정·수용과 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바람직한 양육행동으로 간주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문항 신뢰도 계수는 온정·수용 영역 .85, 거부·제재 영역 .87, 전체 .69였다(표 3 참조).

3)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 척도는 Coopersmith(1967)의 SEI(Self Esteem Inventory)를 번역, 수정한 김경연(1987)의 아동용 자아존중척도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SEI는 부모, 또래, 학교, 개인적 흥미 등 4개 영역에 대한 아동 자신의 평가를 측정하도록 고안된 것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일부 문항의 내용을 수정하고 요인분석한 후 개인, 가족, 또래의 3개 요인으로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총 23문항이며, '매우 그렇다'에서 '매우 그렇지 않다'의 4점 척도로 되어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존감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자아존중감 척도의 전체 신뢰도 계수는 .82, 하위요인별로는 .63-.70이었다(표 3 참조).

<표 2> 연구대상의 분포

구 분		1·2학년	5·6학년	소계	계
이혼가정 아동	남	39	45	84	356
	여	40	38	78	
	소계	79	83	162	
일반가정 아동	남	49	46	95	
	여	50	49	99	
	소계	99	95	194	

〈표 3〉 측정도구의 문항 수와 신뢰도 계수

측정 변인	하위요인	문항 수	신뢰도계수
문제행동	정서문제	4	.78
	행동문제	6	.88
	혼합형문제	16	.91
	전체	26	.96
양육행동	온정·수용	9	.85
	거부·제재	8	.87
	전체	17	.69
자아존중감	개인	12	.70
	가족	7	.69
	또래	4	.63
	전체	23	.82

3. 연구 절차

본 연구의 대상을 구하기 위해 서울, 경기도, 부산, 광주 각 지역별로 교육청 관계자와 교사들에게 부모이혼 아동의 분포에 관해 문의하여 학급당 최소 1-2명의 이혼가정 아동이 있다는 안내에 따라 지역별로 2-3개씩 총 10개 초등학교를 무선적으로 선정하였다. 학교 크기에 따라 학교마다 5-30명의 이혼가정 아동을 무선적으로 선정, 조사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여 대상 아동을 선정하였다. 또한 이혼가정 아동 수와 비슷한 수의 일반가정 아동을 무선적으로 표집하여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 자료 수집 시, 교사가 아동의 행동을 관찰하고 이해할 만한 시간이 필요하므로 새 학년이 시작되고 최소한 3개월이 경과된 후 자료를 수집하였다. 담임교사는 조사대상 아동의 문제행동을 평가하는 척도에 응답하였다. 아동에게는 아동이 지각한 주 양육자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하는 척도를 학교에서 실시하였는데, 저학년의 경우는 소집단의 아동을 대상으로 교사가 문항을 하나씩 읽어주고 답하는 형식으로 실시하였다.

4. 자료분석

연구문제1, 즉 이혼가정의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의 문제행동 및 자아존중감, 주 양육자의 양육행동이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일반량 공분산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아동의 성과 연령이 부모이혼 후의 적응과 관련이 있다는 선행

연구 결과(Emery & Forehand, 1996)에 근거하여, 아동의 성과 학년을 공변량으로 하여 그 영향력을 통제하고 부모의 이혼여부가 아동의 문제행동 및 자아존중감, 주 양육자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각각 검증하였다.

연구문제2, 즉 이혼이 주 양육자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아동의 문제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경로분석(path analysis)을 하였다.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문제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파악하려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이혼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 또한 이 관계가 주 양육자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가하는 것을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이에 따라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범주형 독립변인인 이혼여부는 연속성을 부여하기 어려우므로 가변인(dummy variable)으로 변환하였다. 그리고 아동의 성과 학년을 통제하고 독립변인들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경로분석을 위한 회귀분석시 독립변인을 2단계로 나누어 투입하였다. 즉 1단계에서는 아동의 성과 학년 변인을 입력 방식으로 투입하고, 2단계에서는 영향력을 알고보고자 독립변인들을 단계적으로 투입하였다. 그러므로써 각 독립변인의 영향이 유의한지를 확인하되 그 영향의 정도를 아동의 성과 학년 변인의 영향력과 구분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Ⅲ. 연구 결과 및 해석

1. 이혼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의 비교

1) 아동의 문제행동 비교

이혼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의 문제행동을 비교한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었다. 문제행동 검사는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행동을 많이 보이는 것으로 진단된다. 〈표 4〉에 의하면, 문제행동의 하위영역인 정서문제, 행동문제, 혼합형 문제, 그리고 문제행동 전체에서 이혼가정의 아동이 일반가정의 아동에 비해 높은 점수를 보여 문제행동을

〈표 4〉 이혼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의 문제행동 비교

	이혼가정 아동		일반가정 아동		전체		F
	M	SD	M	SD	M	SD	
정서문제	2.16	.74	1.49	.52	1.80	.71	97.304***
행동문제	1.95	.87	1.35	.48	1.63	.74	68.280***
혼합형문제	1.91	.66	1.42	.38	1.64	.58	75.633***
전체	1.96	.66	1.42	.39	1.66	.59	91.458***

***p < .001

유의하게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각각 $F = 97.304, 68.280, 75.633, 91.458, p < .001$).

2) 주 양육자의 양육행동 비교

이혼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의 주 양육자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일반가정 아동의 경우 대부분 어머니가 주 양육자였으며(82%), 아버지가 그 다음 주 양육자였다(7.7%). 현대 가정의 핵가족화를 반영하듯 조부모가 주 양육자인 경우는 7.2%에 불과하였다. 그 외 친척이 주 양육자인 경우는 극소수였다. 반면에, 이혼가정 아동의 경우 주 양육자는 어머니(31.5%), 아버지(28.6%)가 비슷한 비율이었으며, 다음으로 친할머니(22%)의 순이었다. 또한 친할아버지, 외할머니, 이웃, 부모의 친구가 3% 정도의 비율로 조사되었으며, 외할아버지, 고모나 이모, 복지시설 담당자 등의 응답이 극소수 있었다.

아동이 자신을 돌보아주는 주 양육자의 양육행동에 대해 어떻게 지각하는지를 알아본 결과가 <표 5>에 제시되었다. <표 5>에 의하면, 일반가정 아동은 이혼가정 아동에 비해서 자신의 주 양육자를 더 온정적이고 수용적이라고 지각하고 있으며($F = 15.002, p < .001$), 이혼가정의 아동은 일반가정의 아동에 비해서 자신의 주 양육자를 더 거부적이고 제재적이라고 지각하고 있었다($F = 6.187, p < .05$). 양육행동을 전체적으로 볼 때, 일반가정 아동이 이혼가정 아동보다 주 양육자의 양육행동을 더 바람직하게 지각하고 있었다($F = 13.462, p < .001$).

3) 아동의 자아존중감 비교

이혼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 요인별 점수(개인, 가족, 또

래)와 전체평균 점수는 일반가정 아동의 점수보다 유의하게 낮아(각각 $F = 12.610, 10.656, 11.924, 18.704, p < .001$), 이혼가정 아동이 일반가정 아동보다 개인, 가족, 또래에 관한 자아존중감 및 전체 자아존중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6 참조).

2. 부모의 이혼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이혼이 주 양육자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개념모형을 설정하고(그림 1 참조), 이를 경로분석을 통해서 검증하였다(그림 2 참조). 먼저, 각 변인간 상관을 구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에 의하면, 경로모형을 구성하는 변인과 그 하위변인들 간의 상관은 대부분 유의하였다. 이혼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의 문제행동, 양육행동, 자아존중감이 모두 차이를 보였던 위의 연구결과에서 보듯이, 이혼유무는 모든 변인과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유의한 상관이 없었던 부분은 문제행동 중 정서문제와 거부·제재적 양육행동($r = .07, p > .05$), 개인($r = -.10, p > .05$)과 가족($r = -.10, p > .05$)에 대한 자아존중감이었으나, 정서문제가 전체 양육행동이나 전체 자아존중감과 유의한 상관이 있었으므로 이 변인들을 가지고 경로분석을 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었다.

<그림 2>의 경로분석 결과에 의하면, 부모의 이혼여부가 아동의 문제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혼여부는 아동의 문제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으며($\beta = .42, p < .001$), 경로모형을 설정한대로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통하여($\beta = .02$) 그리고 주 양육자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통하여($\beta = .02$)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쳤다.

<표 5> 이혼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 주 양육자의 양육행동 비교

	이혼가정 아동		일반가정 아동		전체		F
	M	SD	M	SD	M	SD	
온정·수용	2.99	.72	3.25	.52	3.13	.63	15.002***
거부·제재	1.87	.72	1.68	.62	1.76	.67	6.187*
전체+	2.59	.60	2.81	.49	2.71	.55	13.462***

+양육행동 전체는 거부·제재를 역코딩하여 온정·수용과 합한 점수임. 점수가 높을수록 바람직한 양육행동으로 봄.

* $p < .05$ *** $p < .001$

<표 6> 이혼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 비교

	이혼가정 아동		일반가정 아동		전체		F
	M	SD	M	SD	M	SD	
개인	2.51	.48	2.66	.48	2.59	.49	12.610***
가족	2.86	.52	3.04	.52	2.96	.54	10.656***
또래	2.43	.65	2.65	.58	2.55	.62	11.924***
전체	2.60	.43	2.78	.40	2.70	.42	18.704***

*** $p < .001$

〈표 7〉 이혼유무, 양육행동, 자아존중감, 문제행동 요인간의 상관

	이혼 유무	온정/수용	거부/제재	양육 행동	개인	가족	또래	자아 존중감	정서 문제	행동 문제	혼합 문제	문제 행동
이혼유무												
온정/수용	-.20**											
거부/제재	.14**	-.45**										
양육행동	-.20**	.86**	-.84**									
개인	-.16**	.32**	-.31**	.36**								
가족	-.17**	.55**	-.52**	.62**	.53**							
또래	-.17**	.37**	-.14**	.31**	.41**	.29**						
자아존중감	-.20**	.50**	-.42**	.54**	.91**	.78**	.61**					
정서문제	.47**	-.23**	.07	-.18**	-.10	-.10	-.26**	-.16**				
행동문제	.40**	-.25**	.14**	-.22**	-.11*	-.21**	-.14**	-.18**	.57**			
혼합문제	.42**	-.24**	.11*	-.20**	-.18**	-.16**	-.24**	-.23**	.78**	.83**		
문제행동	.45**	-.26**	.12*	-.22**	-.17**	-.17**	-.23**	-.23**	.82**	.89**	.99**	

주. 굵은 글씨는 전체 점수임.

* $p < .05$ ** $p < .01$

간접적인 영향은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을 연결해주는 경로를 따라 경로계수를 곱하여서 얻어지며,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전체 효과(영향력)는 직접적인 효과와 간접적인 효과를 합하여 얻어진다. 본 연구에서 이혼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전체 효과는 .46이었다. 주 양육자의 양육행동은 아동의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자아존중감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만 영향을 미쳤다($\beta = .08$).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문제행동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beta = .15, p < .01$). 이러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즉, 일반가정 아동에 비해서 이혼가정 아동은 문제행동을 더 많이 보인다. 이혼가정 주 양육자의 양육행동은 일반가정의 양육행동에 비해서 덜 온정적, 수용적이고 더 거부적, 제재적이며 이로 인해 아동은 낮은 자아존중감을 가지게 되고 이는 아동이 더 많은 문제행동을 보이는데 영향을 미친다.

〈그림 2〉의 경로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여준 회귀계수를 가지고 이혼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직접 및 간접 효과를 계산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에 의하면, 아동의 문제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표 8〉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인과적(직접적, 간접적) 효과

변인	직접적 효과	간접적 효과	전체 효과
이혼여부	.42	.02, .02	.46
양육행동	-	.08	.08
자아존중감	.15	-	.15

주. 영향력의 크기(β)는 (-)부호를 삭제하고 제시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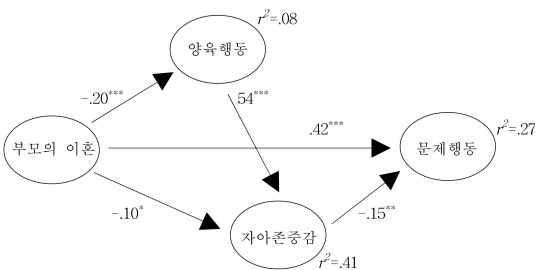
부모의 이혼여부이며($\beta = .46$), 다음으로는 아동의 자아존중감($\beta = .15$)이었고 그 다음으로 주 양육자의 양육행동($\beta = .08$)이었다.

IV. 논의 및 결론

이혼이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서양에서는 이혼의 영향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었고, 또한 이들 나라에서는 가족관계가 우리나라와 다르기 때문에 이혼을 바라보는 시각도 우리와 차이가 있다. 그러나 전통적인 가족제도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는 이혼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는 이혼가정의 자녀에게 심리적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본 연구는 1990년대 이후 급격히 증가한 이혼이 아동의 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기본적인 관심을 두고, 이혼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문제행동을 비교하였다.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중 가족변인인 양육행동과 개인변인인 자아존중감을 선정하여 이혼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을 비교하였고, 부모의 이혼이 주 양육자의 양육행동과 자녀의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문제행동에 어떠한 경로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문제 분석 시 성과 연령을 통제하였는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2〉 부모의 이혼, 양육행동, 자아존중감, 문제행동 간의 경로분석 결과

데 이는 아동의 성과 연령이 부모이혼 후의 적응과 관련이 있다는 선행연구들의 결과에 근거한 것이다. 이에 의하면, 성별이 남아인 경우와 연령이 낮은 경우 부모이혼 후 적응에 더 어려움을 겪는다고 한다(김경근, 2006; Emery & Forehand, 1996; Hetherington et al., 1982).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에 부모가 이혼을 하면 아동은 심리적으로 애착을 형성한 부모와의 관계가 단절될 것 같은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 심리적인 불안을 경험하게 되며, 부모의 이혼을 이해하지 못해 혼란스러워지고 자신을 비난하는 경향을 보인다(오은순, 1997; Emery, 1999). 그 결과 아동은 정상적인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 심리적, 신체적 부적응을 나타낸다. 따라서 아동의 성과 학년을 통제하고 부모의 이혼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첫 번째 연구문제의 결과에 의하면, 부모의 이혼은 아동의 문제행동, 주 양육자의 양육행동, 그리고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모두 영향을 주었다. 즉 이혼가정 아동은 일반가정 아동에 비해 문제행동을 더 많이 보였으며, 자아존중감이 낮았고, 주 양육자의 양육행동을 덜 온정적, 수용적이고 더 거부적, 제재적이라고 지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이혼이 아동의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권영미, 1999; 박병금, 1997)을 지지하는 것이다. Amato와 Keith(1991)에 의하면 가족은 자녀에게 사회화를 제공하는 핵심체계이다. 그러므로 이혼가정은 부모 중 한 사람이 부재하게 되므로 자녀는 사회화 과정에서 역할 모델의 결핍을 경험하게 되어 일반가정에 비해 자녀의 사회화에 부적합하다. 부모가 자녀에서 투입하는 시간과 에너지도 저하되고 정서적인 지지원도 줄어들며 부모의 관심, 지지, 지도감독 등이 감소할 가능성이 커지므로, 이는 자녀의 학습 실패, 낮은 자아존중감, 문제행동 등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협동심, 협상, 타협 등의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다(권영미, 1999; 김남숙, 1993; 이삼연, 2002; 홍순혜, 2004; Guidubaldi & Perry, 1985). 또한 이혼가정의 부모들은 이혼 후의 역할긴장과 스트레스로 인해 이혼 전에 비해 비일관적, 거부적, 통제적이며 덜 애정적인 양육행동을 보이고(Hetherington et al., 1982) 이는 자녀의 문제를 더욱 증가시킨다.

두 번째 연구문제인 경로분석 결과를 보면, 이혼가정 아동이 일반가정 아동에 비해 문제행동을 더 많이 보이게 되는 경로가 검증되었다. 즉 부모의 이혼 자체가 자녀의 문제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이혼가정 주 양육자의 양육행동이 일반가정의 양육행동에 비해서 덜 온정적, 수용적이고 더 거부적, 제재적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 아동은 낮은 자아존중감을 가지게 되고 이는 아동이 더 많은 문제행동을 보이는데 영향을 미쳤다. 또한 이혼가정 아동은 일반가정 아동에 비해 자아존중감이 낮았고 이는 문제행동을 더 많이

보이는데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다음의 몇몇 선행연구의 결과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 홍순혜(2004)는 부모의 이혼이 자녀의 적응에 미치는 경로를 분석하였는데, 가정의 경제수준과 부모의 양육행동을 매개로 하여 이혼의 영향 경로를 살펴보았다. 즉 부모의 이혼이 가정의 경제수준에 영향을 주고 가정의 경제수준이 부모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주어 결국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경로를 밝혔다. 이주리(2008)는 한부모 가정의 부모양육태도가 자아존중감을 통하여 청소년의 내면화문제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하였다. 이혼가정의 자녀라도 양육자가 높은 수준의 온정, 애정을 보이고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는 훈육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질 낮은 양육을 받는 일반가정의 자녀에 비해 행동문제를 덜 보이고 높은 자아존중감을 보이는 반면, 온정성이 낮고 독재적, 통제적일 경우 자녀는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가지고 있었다(Dunlop, Burns, & Bermingham, 2001). 이 같은 결과는 부모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고(강희경, 2002), 자아존중감이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백혜정, 황혜정, 2006; 최미래, 이인혜, 2003; Cole, 1991) 선행연구의 결과들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다. 즉 부모의 이혼은 그 자체로 아동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이혼가정이 이혼하지 않은 가정에 비해 적응에 도움이 되는 지지적인 자원이 부족하거나 부모가 이혼 후에 겪는 경제적 어려움, 우울, 스트레스 등에 의해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고 이혼가정의 자녀는 이로 인해 자아개념, 자아존중감 등이 낮기 때문에 적응상의 문제를 보이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경로모델 결과에서 주 양육자의 양육행동이 자녀의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도 일부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한다. 주소희와 조성우(2004)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행동적응문제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주리(2008)의 연구에서도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내면화문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학령기 후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한준아(2008)의 연구에서도 부모의 양육행동은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해 유의한 설명력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Forehand 외(1991)는 이혼가정의 청소년 자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부모의 양육행동이 자녀의 스트레스 같은 부정적인 변인의 효과를 완충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이들 연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부모의 양육행동이 자녀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변인임에도 불구하고 경로를 통해서 매개변인으로서의 그 영향력을 살펴보면 직접적인 영향력은 감소되고 간접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이혼가정 아동의 문제행동은 양육자의 양육

행동이 어떠한가에 따라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기보다는, 양육자가 아동을 양육하는 행동이나 태도에 따라 아동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와 같은 자아지각이나 자아존중감을 통해 영향을 받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자아존중감이 이혼가정 아동의 문제행동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이혼가정의 경우 아버지나 어머니가 주 양육자인 경우가 60% 정도였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의 양육행동이 일반적으로 부모가 미치는 강력한 영향력에 비해 다소 약할 수도 있다고 본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을 통제하지 않았다. 본 연구의 관심이 이혼에 의해 영향을 받은 부모와 자녀의 심리적인 변인의 경로에 있었고 연구대상 선정 시 중류계층 지역의 초등학교에서 무선표집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아동의 학교 적응에 사회경제적인 요인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연구들도 있으므로(주소희, 2003) 따로 사회경제적 수준을 통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혼가정의 경제적인 형편이 부모와 아동의 적응에 영향을 준다는 홍순혜(2004)의 연구결과에 비추어 볼 때 이를 통제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이혼 당시 아동의 연령이 적응과 관련이 있다는 선행연구에 따라 아동의 학년을 통제하고 분석하였으나, 이혼시기와 기간에 따라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떻게 다른지는 분석하지 않았다. 영아기, 유아기에 겪은 부모의 이혼과 이혼기간의 장단에 따라서도 아동의 적응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김지영, 2002; 오은순, 1997; 이삼연, 2002; 주소희, 1991) 후속연구에서는 이를 세밀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부모의 이혼이 양육행동이나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하여 아동의 행동문제를 설명하는 설명력이 그리 높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혼가정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상에서 매개변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다른 변인들(예, 부모의 심리적 적응, 스트레스, 아동의 정서 조절능력, 자기조절력, 또래관계 등)을 발견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이혼에 관한 많은 연구들은 이혼의 부정적인 영향에 주로 초점을 맞추어 수행되었는데 이는 횡단적 설계에 근거하여 이혼 후 경과된 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아동의 적응을 측정하였기 때문이기도 하다(박경자 외, 2009). 그러나 이혼의 부정적인 영향뿐 아니라 긍정적인 영향까지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혼 전후 과정에서의 아동과 부모의 적응이나 삶의 질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요구되며 이를 장기적, 종단적으로 추적할 필요가 있다.

이혼이 증가하면서 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아동도 증가

하고 있다. 그러나 급격하게 증가하는 이혼율에도 불구하고 이혼과 그 영향에 대한 연구들이 그리 많이 수행되지는 않아 이혼에 따른 여러 결과들에 대해 충분하게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혼가정 아동의 적응과 문제행동에 영향을 주는 직접적, 간접적인 요인과 그들의 영향 경로를 밝히는 것은 이들의 문제행동을 완화시켜 적응에 도움을 주는데 매우 유용할 것이며, 이러한 면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더불어 부모의 이혼이 아동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요인뿐 아니라 부모의 이혼을 아동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응하는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즉 스트레스나 부정적인 상황에 대한 아동의 탄력성이나 회복력(resilience)에 따라 부모의 이혼을 겪는 아동의 적응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적용하여 이혼가정 아동의 심리적 탄력성, 회복력, 자아존중감 발달을 위한 사회정서적 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강희경(2002). 부모의 초기 권위 유형과 청소년기 자녀의 자아존중감 및 완벽성. **청소년학연구**, 9(3), 37-55.
- 공선영(2000). 모자 가족의 경험과 적응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권영미(1999). 부모의 이혼이 자녀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경근(2006). 학업성취에 대한 가족해체의 영향. **교육사회학연구**, 16(1), 27-49.
- 김경연(1987). 부모의 아동평가, 자아존중, 양육태도와 아동의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남숙(1993). 부모의 이혼이 청소년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승경, 강문희(2005). 이혼가정 아동의 탄력성에 대한 위험-보호요인들 간의 경로분석. **아동학회지**, 26(1), 261-278.
- 김지영(2002). 이혼가정아동의 적응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경자, 최혜영, 한준아(2009). 이혼 가족 아동. **아동학회지**, 30(6), 323-336.
- 박병금(1997). 이혼가정 자녀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집단 사회사업개입의 효과.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영애 (1995). 부모의 양육행동 및 형제관계와 아동의 자존감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백혜정, 황혜정(2006). 초등학생의 문제해결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관련 변인 및 자아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9(3), 1-27.
- 오은순(1997). 이혼 가정 아동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변인들의 구조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유희정(2001). 부모의 이혼과 부모간의 갈등이 대학생 자녀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가족과 문화**, 13(2), 57-78.
- 이경남(2002). 청소년의 애착, 자아존중감 및 충동통제가 비행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0(8), 191-206.
- 이삼연(2002). 이혼가정 청소년 자녀의 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0, 37-65.
- 이재재(1999). 편부모 가족기능 요인에 따른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은경, 박성연(2004). 양친이 안 계신 가정 아동의 정서·행동문제에 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2(12), 191-204.
- 이주리(2008). 한부모 가정 청소년의 부모 양육태도와 내면화 문제와의 관계에서 정서적 조절과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검증. **아동학회지**, 29(3), 115-125.
- 정진영(1993). 한국의 이혼실태와 이혼가정자녀들의 문제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1, 81-108.
- 주소희(2003). 부모이혼에 대한 아동의 지각과 이혼가정자녀의 심리, 행동 적응문제와의 관계. **한국가족복지학**, 12, 179-210.
- 주소희, 조성우(2004). 이혼가정자녀의 행동적응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요인과 아동의 이혼지각분석. **한국사회복지학**, 56(4), 215-238.
- 천희영, 정계숙, 옥경희, 황혜정, 최성학(2006). 부모별거 초등학생의 별거 경험 및 양육요인에 따른 사회·정서적 적응력 연구-연변 조선족 아동과 한국 아동의 비교-. **아동학회지**, 27(2), 125-150.
- 최미례, 이인혜(2003).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중재효과와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2(2), 363-383.
- 통계청(2002). **혼인-이혼 통계발표**. 대전: 통계청.
- 통계청(2010). **2009년 이혼통계결과**. 대전: 통계청.
- 하영희(2003). 개인변인과 환경변인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4(4), 29-40.
- 한준아(2008). 이혼 가정 아동의 자아지각 및 문제행동.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한준아, 박경자(2008). 저소득층 이혼 가정 아동의 적응에 있어 보호요인 탐색: 아동의 대처 전략, 부모 양육 유형, 부모의 스트레스, 사회적지지. **대한가정학회지**, 46(8), 1-15.
- 홍순혜(2004). 부모의 이혼이 청소년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양육부모의 경제수준 및 양육행동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17, 151-177.
- 황혜정(2005). 유아의 문제행동 진단을 위한 부모용·교사용 검사 개발 연구. **유아교육연구**, 25(2), 235-257.
- Amato, P. R., & Keith, B.(1991). Parental divorce and the well-being of children: A meta-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110, 126-146.
- Cole, D. A.(1991). Preliminary support for a competency-based model of child depress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9, 422-429.
- Coopersmith, S.(1967).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NY: W. H. Freeman.
- Darling, N., & Steinberg, L.(1993). Parenting style as context: An integrative model. *Psychological Bulletin*, 113, 487-496.
- Donnellan, M. B., Trzesniewski, K. H., Robins, R. W., Moffitt, T. E., & Caspi, A.(2005). Low self-esteem is related to aggression, antisocial behavior, and delinquency. *Psychological Science*, 16(4), 328-335.
- Dunlop, R., Burns, A., & Bermingham, S.(2001). Parent-child relations and adolescent self-image following divorce: A 10 year study.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0, 117-134.
- Emery, R., & Forehand, R.(1996). Parental divorce and children's well-being: A focus on resilience. In R. J. Haggerty, L. R. Sherrod, N. Garmezy & M. Rutter(Eds.), *Stress, risk and resilience on children and adolescents: Processes, mechanisms, and interventio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Emery, R. E.(1999). *Marriage, divorce, and children's adjustment*. Thousand Oaks, CA: Sage.
- Forehand, R., Wierson, M., Thomas, A. T., Fauber, R., Armistead, L., Kempton, T., et al.(1991). A short-term longitudinal examination of young adolescent functioning following divorce: The role of family factor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9, 97-110.
- Guidubaldi, J., & Perry, J. D.(1985). Divorce and

- mental health sequence for children: A two year follow up of a nationwide sample.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Psychiatry*, 24, 531-537.
- Hetherington, E. M.(1993). An overview of the Virginia longitudinal study of divorce and remarriage with a focus on early adolescence.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7, 1-18.
- Hetherington, E. M., & Camara, K. A.(1984). Families in transition: The processes of dissolution and reconstitution. In R. D. Parker(Ed.), *Review of child development research*.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Hetherington, E. M., Cox, M., & Cox, R.(1982). Effects of divorce on parents and children. In M. Lamb (Ed.), *Nontraditional families*(pp. 233-288). New Jersey: Lawrence Erlbaum.
- Isaacs, M. B., & Leon, G. H.(1986). Social networks, divorce, and adjustment: A tale of three generations. *Journal of Divorce*, 9(4), 1-16.
- Jang, S. J., & Thornberry, T. P.(1998). Self-esteem, delinquent peers and delinquency: A test of the self-enhancement thesi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3, 586-598.
- Kazdin, A. E.(1989).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current research, issues and directions. *American Psychologist*, 44, 180-187.
- Kogos, J. L., & Snarey, J.(1995). Parental divorce and the moral development of adolescents. *Journal of Divorce and Remarriage*, 23(3), 177-186.
- Krauss, S.(1979). The crisis of divorce: Growth promoting or pathogenic? *Journal of Divorce*, 3(2), 107-121.
- Kurdek, L. A., & Siesky, A. E.(1980). Children's perceptions of their parents' divorce. *Journal of Divorce*, 3, 339-379.
- Muransky, J. M., & DeMarie-Dreblow, D.(1995). Differences between high school students from intact and divorced families. *Journal of Divorce and Remarriage* 23(3/4), 187-196.
- Rosenberg, M.(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 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utter, M.(1967). A children's behaviour questionnaire for completion by teacher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8, 1-11.
- Sandler, I.(2001). Quality and ecology of adversity as common mechanism of risk and resilience.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9, 19-61.
- Schaefer, E. S.(1959). A circumplex model for maternal behavior. *Journal of Abnormal Social Psychology*, 59, 226-235.
- Skitka, L. J., & Frazier, M.(1995). Ameliorating the effects of parental divorce: Do small group interventions work? *Journal of Divorce and Remarriage*, 24(3), 159-179.
- Twaite, J. A., Silitsky, D., & Luchow, A. K.(1998). *Children of divorce: Adjustment, parental conflict, custody, remarriage, and recommendations for clinicians*. London: Jason Aronson.
- Wallerstein, J. S., Lewis, J. M., & Blakeslee, S.(2000). *The unexpected legacy of divorce: The 25 year landmark study*. NY: Hyperion.
- Wolchik, S. A., Wilcox, K. L., Tein, J., & Sandler, I. N.(2000). Maternal acceptance and consistency of discipline as buffers of divorce stressors on children's psychological adjustment problem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28(1), 87-102.

접 수 일 : 2010년 5월 3일

심사시작일 : 2010년 5월 7일

게재확정일 : 2010년 7월 13일